

[V] 세속화가 의미하는 것

□ 제 1 회 □

L: 오늘은 현대에 있어서의 기독교가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로부터 약 20년 간의 세계 교회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즉 세계 교회 운동이라고도 합니다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알만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근본 정신이 한국 교회에 골고루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렇게 다루면 좀 흥미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즘 세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첨부해 나가면 좀 재미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K: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에큐메니칼 운동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현재 세계 기독교 중에서 제일 말생이 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점을 다루는 것이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세속화니 상황 윤리니 하는 문제부터 먼저 화제로 삼으면……

L: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화제가 되는 세속화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여러 군데서 이에 대한 강연회나 글이 발표되었읍니다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해야 할 점은 이 세속화라는 어휘가 띄어 써서 거슬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세속화라는 말부터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K: 저도 여러 군데서 이 세속화라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가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것의 반대되는 것, 더럽고 썩하고 또 속된 것이라고 해서 차라리 세상화(世上化) 또는 생활화(生活化)라는 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가라고 제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의 표현이라는 것이 꽤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한 나라의 말이란 이미지나 뉘앙스가 있는 법인데 속되다는 말이 서구에서도 역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원론적인 종교와 전통이 긴 역사를 통해서 지배하여 오던 나라에서 더 심각한 반발을 야기시킨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우리 나라에서는 성속(聖俗) 개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속되다는 것은 즉시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L: 역시 서구에서도 이 세속화라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세속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그런지 그다지 언어 표현에는 구애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이 세속화라는 문제 자체나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K: 원래 이 세속화라는 문제는 요즘에 처음 기독교에서 문제로 다루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원을 찾자면 아마도 기독교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교회 발전의 저변에 있어 왔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처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데는 그간의 역사적인 발전과 기독교 자체의 깊은 반성, 그리고 자기 비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흔히 이 경향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속화의 경향을 신기한 착상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으로 단정해 버리는데 그것은 속단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게 된 역사적인 경과와 필연성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 '역사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서구의 역사를 알아야 하겠지만, 또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입장 즉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생겨진 새로운 사상을 토론이나 연구

5. 세속화가 의미하는 것

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 그렇습니다. 2천 년 동안의 서구 기독교 역사의 발전에서 빚어진 사상을 80 년밖에 안 되는 한국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데는 무리가 있고, 따라서 이것을 한 마디로 받아들인다고나 배척한다고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구의 기독교가 발전한 과정을 돌이켜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늘 말썬이 된 것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히브리적인 사고와 회람적인 사고가 서로 대립되어서 어떤 때에는 긴장 관계에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회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은 이미 이러한 사상적인 데서 씨가 뿌려졌다고 봅니다.

L: 흔히 회람 사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며 유대 민족의 사상을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세속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의 조류를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사상적인 것이 됩니까만,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전개시켜 봤으면 하네요.

K: 한 마디로 회람 사상 즉 헬레니즘에서는 시간 개념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고 합니다. 역사라는 것이 어떤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생 동안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되돌아오는 반복되는 시간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앙과 사상에 있어서는 시간이 일정한 시발점에서부터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람 사상에서는 진정한 시간 개념 즉 역사의 개념이 없었고, 있다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공간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공간이라는 차원 속에 예측되는 시간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해도, 이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시간이라는 뜻, 즉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시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L: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말의 의미에 벌써 모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이 '세상'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히브리적인 사상 즉 역사의 목적이 뚜렷한 의미에서 쓰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헬레니즘의 입장에서 해석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사상은 한 가지 말, 즉 이 세상이라는 말을 가지고도 두 가지 의미로서 사용했다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어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K: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틀어서 세속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이 세속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세속화 문제는 우리의 입장 즉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세속이라는 말과는 그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장합니다만, 우리의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전통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반성을 하지 않고서 세속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2 회 □

L: 주로 '세속화'라는 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호한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마 세속화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세속화라는 말에서 받은 인상이나 오해가 다소 불식되거나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우선 세속화라는 것과 근대화 혹은 현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속

5. 세속화가 의미하는 것

화라고 합니다만, 일반 사회에서는 근대화 혹은 현대화라고 하는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분명히 해놓고 지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K: 사실 요즘에 와서 우리 사회나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거의 동시에 두드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근대화나 현대화는 어디까지나 눈에 띄는 면, 물에 뜬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또는 기술화를 가지고 현대화를 운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에 따르는 윤리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현대화나 근대화 자체에서는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라는 것은 근대화의 밑바탕이 되는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다루며 생각하는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둘을 구별하고 갈라 놓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한 사택나 과정의 두 면을 말한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을 정치, 경제면에서 보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이 근대화라고 하면, 신학적,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 삼는 것이 세속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L: 기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산업화하게 됨을 따라서 정치, 경제가 합리적으로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근대화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명, 교육, 그리고 매스컴의 발달도 수반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근대화 과정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세속화 문제라고 한다면 세속화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문제입니다.

K: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천인데,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여도 어떤 가치관에 의지하지 않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고, 또 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러한 가치관에 도전하는 세력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근대화의 가치관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세속화의 신학이라고 봅니다. 세속화는 기성 교회의 전통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근대화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L: 세속화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근대화에 대한 도전이란 말은 꽤 흥미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인지요……

K: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근대화라는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 문제를 제시한다는 데서 우선 세속화의 도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인가를 보여준다는 데서 한 가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과거의 전통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성숙의 구별이라든가 경건주의, 도피주의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을 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세속주의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실존주의적인 철학이나 문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룩해 놓은 긴장 관계를 창조적으로 생각해 나가자고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대에 있어서 세속화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서는 사면초가를 각오하고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L: 그러면 세속화가 제시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속화는 세속주의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세속화와 세속주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벌써 어떤 가치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주의가 이 현세 속에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 자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세속화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섭리를 하나씩 이룩해 나간다는 데서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세속화의 특징을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5. 세속화가 의미하는 것

K: 여기에서 세속화의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번에도 언급한 대로 히브리 사상과 회람주의의 대립과 혼합에의 새로운 지양을 다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하아비 콕스의 '세속 도시'에서 세속화의 가치 개념을 서술하고 그 성서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꼭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인간의 가치관의 성격을 자연과 정치와 가치 자체에 대한 태도로써 구별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연에 대해서 옛날에는 자연에 대해서 무슨 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인간은 신적인 자연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연 자체 속에 신비스러운 힘이 있다고 믿고, 소위 자연 신을 숭배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L: 그렇게 보면, 그것이 비단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자연에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자연의 지배에 따라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들은 역시 세속화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겠다는 말이지요.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연이지,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데서 세속화의 성격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K: 그런 주장을 하던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늘 그 인근 지방의 이방 민족에게 '무신론자들'이라는 지탄을 받았읍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 늘 자연 종교, 자연 신을 섬기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것은 자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나 목축을 생업으로 삼는 민족 역사에서는 이런 자연 종교가 생기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는 늘 이런 자연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의 하나로서밖에 의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절대화하는 일과 늘 싸운 이스라엘 백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지상의 어떠한 자연 질서도 그 자체가 신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했지요. 이것이 아마 신앙의 세속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문제인 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아비 룩스는 서양에서 자연 과학이 빨리 발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럽의 기독교의 성서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교의 성서적 신앙의 입장에서 자연의 위치를 숭배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이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L: 한국의 전통에서 말한다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근대화에서 제거가 될 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속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K: 세속화의 첫 과정은 자연 신과의 투쟁을 통해서 여호와와 주권을 선포하고 창조의 질서 중에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 제 3 회 □

L: 그러면 근대화의 가치관의 두 번째 요소인 정치 이야기로 옮겨가기로 하겠습니까. 자연관에서 마술적인 힘을 부정한 히브리 사상은 또 정치관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K: 예, 세속화의 둘째 요소는 또 현실의 정치,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 이룩된 정치 체제나 제도에 대해서도 섹성한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히브리 사상의 특징입니다. 고대로부터 어떤 국가 사회에서도, 정치적 권력을 잡은 왕이나 황제가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처하는 일이

5. 세속화가 의미하는 것

있었습니다. 군주 특히 전체적인 군주는 백성에게 임할 때, 자신의 권력이 마치 신적인 바탕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집트나 로마, 회람, 가까이는 중국,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독일, 러시아 등의 모든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언제나 신성한 것이라고 해 왔었습니다. 중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법왕과 국가의 황제 간에 늘 이 신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각축을 해 왔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군주의 힘도 인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힘이요, 군주의 권력 자체가 아무런 신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마도 허브리 사상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L: 말하자면 정치적 권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요, 인간이 이 정치를 절대화해서 이것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좋은 예로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K: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것을 민족 해방의 역사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압정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길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민족 해방은 동시에 바로의 신정(神政) 정치를 부정하고 정치의 비신성성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유대 백성을 해방시켜 광야에서 예배케 하소서”라고 간청했더니 바로가 대답하기를 “저들은 게으르고 또 게으른 백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에게 있어서는 국민을 노동의 자본 즉 스펅크스나 사원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만 생각하고 전체군주의 신격화를 돕는 존재로만 보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일은 게으르고 또 게으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L: 제정 시대에도 일본 군부 정권에서는 일요일에도 일하라고 한 일이 있었지요. 정치 권력이 스스로 절대화하려고 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때는 으레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속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한다는 것, 즉 히브리 사상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연과 정치 자체가 온전한 신적인 요소를 추출해 놓아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인간 사회에도 정치나 자연 자체가 절대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절대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뜻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정치 세력과는 언제나 대립되고 싸우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K: 사실 그렇습니다. 세속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 더 앞서야 하고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세속화의 과정은 결코 이 세상에 영합해서 참여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관한 문제로서는 초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정치적 군주의 세력을 털어내고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에 따라서 군주의 권력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초대 크리스천들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거부했었지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요컨대 황제에게 국가를 다스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영역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게 대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군주의 신성한 절대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회피도 이 초대 교회의 신도들의 태도를 '거룩한 세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이시스, 시벨, 미트라 같은 신, 즉 이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신을 숭배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황제에 대한 숭배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L: 정치적인 권력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이 곧 현실에서 부

5. 세속화가 의미하는 것

터 도피를 바라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언제나 국가와 교회 사이에는 일정한 긴장 관계가 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한 국가 안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국가는 강대해 질 수가 없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K: 마키아벨리 뿐만 아니라 13 세기부터 17 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유럽의 저명한 사상가들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의 베에르 베일이 전형적인 사람인데, 마르크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포이에르바하는 처음 쓴 저서를 이 베일이라는 프랑스 사상가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L: 오늘날에는 대통령의 취임식이나 법정에서도 성서 위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 주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이고, 역시 오늘날에도 근대화되어 간 정치 사회 안에서 정치 권력을 절대화하거나 집권자를 신성시하는 경향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 확립에는 이러한 정치와 자연에 대한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는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K: 거기에 동감입니다. 자연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역시 가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속화 과정에서 세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윤리 문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새 시대에 새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가치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새 가치관이나 낡은 가치관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L: 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상대화되어야 다원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것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세상은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지요. 윤리적으로는 허무주의가 나타나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근대화가 다원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다원화에 필요한 가치의 상대화가 사회적인, 윤리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K: 사실 가치를 상대화해서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을 규범적으로 만들어서 이를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안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가치관이 상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당성을 주게 되느냐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인 동시에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